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o.kr 080)320-7700

“비밀병기 장착… 마운드 부활 보여주겠다”

KIA 양현종, 스프링 캠프서 커브 연마

“좋은 평가에 자신감 상승… 실전무대 기대”

양현종이 신비주의 전략으로 에이스 자리를 탐한다.

새로운 구장에서 시작되는 새역사, KIA 타이거즈에게 2014 시즌은 새출발의 해다.

치욕적인 부진을 털어내고 새로 팀을 꾸려나가야 하는 이번 시즌에서 가장 눈길이 쏠리는 곳은 마운드다. 마운드에서도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이는 역시 양현종이다.

KIA 마운드 왕조 재건의 핵심 자원으로 꼽혔던 좌완 에이스.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로까지 날개를 펼쳤지만 2년의 추락이 가팔랐다.

지난해도 시즌 완주를 하지는 못했다. 그렇지만 아쉬움보다는 희망이 더 컸던 시즌이었다. 뜻밖의 옆구리 부상이라는 큰 아쉬움을 잊게 해준 부활투가 더 강렬했기 때문이다. 전반기 양현종 시대를 열었고 부상에서 돌아온 후반기에는 올 시즌에 대한 희망을 보여줬다.

좌완 대표를 넘어 팀의 에이스로의 발돋움을 꿈꾸는 양현종이 비장의 무기를 준비하고 있다. ‘가을까치’ 김정수 코치에게 전수받은 커브가 양현종이 갈고 닦는 신무기다.

앞선 마무리 캠프에서 올 시즌에 대한 큰 틀을 짰던 양현종의 구상에는 커브가 있다.

지난해 양현종은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강속구가 살아나면서 부활에 성공했다. 알고도 치지 못하는 위력적인 직구 덕에 마운드에서는 한결 여유가 생겼다.

직구가 되살아나면서 자신감을 회복한 양현종은 마무리 캠프에서는 변화구에 주력을 했다.

양현종은 “김정수 코치님의 커브를 던져봤는데 딱 내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코치님과 제대로 보여주기로 했다. 좋은 평가도 받았고 나도 자신 있다”며 자신의 커브 구상을 밝혔다.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이후 시도했던 커터 장착이 실패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고 있다. 부상 속 준비가 부족했던 시도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지난 시즌 커터 그립이 변화구 승부에 도움이 됐다는 판단이다. 무엇보다 자신감도 있고 주무기인 직구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양현종은 “주변에서 커터를 던지지 말라고도 했는데 언젠가 쓸 생각을 하면서 그 감각을 유지하고 있었다. 어깨 상태가 괜찮아지면서 생각대로 잘 된 것 같다”며 “슬라이더 같은 경우 직구와 비슷하게 던지기 때문에 우려가 있을 수도 있지만 커브는 직구와 다르기 때문에 괜찮다. 나의 주무기인 직구를 우선으로 하면서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비장의 무기’답게 양현종의 커브는 베일에 가려져 있을 전망이다. 꽁꽁 숨겨두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꺼내들겠다는 것이 양현종의 계획이다.

양현종은 “시범경기 때도 커브는 던지지 않을 생각이다. 스프링캠프에서는 자체 청백전에서나 던지고 다른 팀과의 시합 때는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진짜 실전에서 보여주겠다”며 신비주의 전략을 얘기했다.

비장의 무기를 통한 양현종의 업그레이드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지 기대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날아라~ ‘터치타운’ 미국프로풋볼(NFC) 샌프란시스코 포티나이너스의 앤서니 딕슨(위)이 20일 시애틀 시호크스와의 챔피언십 경기에서 터치다운을 위해 몸을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쾌조의 스타트’ 박태환

호주 빅토리아 오픈 자유형 200m·400m 金

인천 아시안게임을 대비해 호주에서 담금질 중인 박태환(25·인천시청)이 훈련을 겸해 출전한 현지 대회에서 2관왕에 올랐다.

박태환은 지난 19일 호주 브리즈번의 스포츠&아쿠아틱 센터에서 막을 내린 2014 빅토리아 오픈 챔피언십에서 남자 자유형 200m와 400m에서 금메달을 땄다.

대회 첫날인 17일 남자 자유형 400m 결승에서 3분47초72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레이스를 마친 박태환은 자유형 100m에서는 49초35로 호주 국가대표 제임스 매그누선(47초73)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이어 18일 자유형 200m 결승에서는 1분48초00으로 매그누선(1분48초45)을 제치고 금메달을 보탰다. 박태환의 자유형 400m와 200m 개인 최고기록은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할 때 각각 작성한 3분41초53, 1분44초80이다.

박태환은 인천 아시안게임을 준비하고자 지난 11일 출국, 호주 브리즈번에서 전담 지도자인 마이클 볼(호주) 코치와 함께 새해 1차 전지훈련을 하고 있다. 이번 호주 훈련은 3월 6일까지 8주 동안 진행된다.

박태환은 2월 28일부터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될 뉴사우스웨일스챔피언십 대회에도 출전, 훈련 성과를 평가하고 경기력도 끌어올릴 계획이다. /연합뉴스

‘황제의 귀환’ 안현수

유럽 쇼트트랙 선수권 4관왕

러시아 국적으로 새 출발 한 ‘쇼트트랙 황제’ 안현수(29·러시아명 빅토르 안)가 유럽선수권대회 4관왕에 올랐다.

안현수는 20일 독일 드레스덴에서 열린 2014 유럽 쇼트트랙 선수권대회 마지막 날 남자 1000m와 3000m 슈퍼파이널에 이어 5000m 계주까지 이날 걸린 3개의 금메달을 모두 휩쓸었다.

전날 남자 50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안현수는 1500m를 제외한 모든 종목에서 우승, 4관왕에 올랐다.

안현수는 순위 포인트 102점을 얻어 세멘 엘리스트라토프(러시아·60점)를 멀찍이 제치고 종합 우승까지 차지했다.

1,000m 결승에서 1분24초940의 기록으로 엘리스트라토프(1분25초215)를 꺾고 금메달을 따낸 안현수는 상위 9명의 선수가 출전한 3,000m 슈퍼파이널에서도 4분47초462의 기록으로 우승했다. 개인전 3관왕을 달성한 그는 남자 5,000m 계주에서도 러시아(6분45초803)의 승리를 이끌고 4관왕을 달성했다.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 3관왕인 안현수는 부상, 빙상연맹과의 갈등, 소속팀의 해체 등이 겹쳐 방황하다가 2011년 러시아 국적을 얻었다.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자존심을 회복하겠다고 벼른 그는 올 시즌 월드컵 시리즈에서 두 차례 500m 금메달을 차지하는 등 전성기를 방불케 하는 기량을 뽐내고 있다.

특히 소치올림픽의 마지막 리허설 격으로 치른 이번 대회에서 절정의 컨디션을 과시해 강력한 메달 후보로 자리매김했다. /연합뉴스

소치행 한국 썰매, 20명 탑승

봅슬레이 14명·스켈레톤 2명 등 역대 최다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한국 선수단 가운데 썰매 종목 선수만 역대 최다인 20명에 이를 전망이다.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FIBT)과 국제루지연맹(FIL)이 주관하는 소치올림픽 출전 자격 대회가 20일(한국시간)까지 마무리되면서 선수단의 윤곽이 드러났다.

남자 4인승과 2인승에서 2팀씩 출전권을 확보하고 여자 2인승에서 1팀의 출전권을 따낸 봅슬레이 대표팀에서는 최대 14명의 선수가 소치 땅을 밟을 수 있다.

남자 대표팀에서는 4인승 두 팀의 주전 멤버인 8명에 4인승 1명, 2인승 1명씩의 후보가 무조건 소치로 향한다. 여기에 예비 엔트리에 들어갈 선수를 추가로 1~2명 선발할 수 있다.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최대한 많은 선수들에게 올림픽 경험을 쌓게 해주기 위해 예비 엔트리도 2명을 모두 채워 보내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FIBT의 원칙에 따르면 여자 2인승에서도 1명의 후보를 출전시킬 수 있지만, 저변이 좁은 국내 여건상 내보낼 만한 마땅한 후보가 없는 탓에 김선옥(서울연맹)·신미화(삼육대) 두 명의 주전 선수밖에 출전하지 못한다. 최대한으로 잡으면 봅슬레이에서만 14명의 선수가 소치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다.

스켈레톤에서도 역대 최초로 2명의 선수가 올림픽 무대를 밟는다. 이미 출전권을 확보한 윤성빈(한국체대)에 이어 이한신(전북연맹)도 이날 소치 출전을 확정지었다.

올 시즌 랭킹 37위에 올라 있던 이한신은 마지막까지 경쟁하던 요셉 루크 체치니(이탈리아·45위)가 마지막 월드컵 대회에서 27위에 그친 덕에 출전권을 손에 넣었다.

루지에서는 이미 남·녀 싱글과 2인승 등 전 종목에서 4명의 선수가 출전권을 확보해 둔 상태다.

봅슬레이와 스켈레톤, 루지를 모두 더하면 소치올림픽에 나설 선수는 무려 20명에 이른다. 한국 선수단의 인원이 최대 71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30% 가까운 인원을 한국 썰매가 책임지는 셈이다.

선수단 중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는 빙상 세 종목(28명)에도 뒤지지 않는 숫자다.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에서 강광배 FIBT 부회장이 루지 선수로 한국 썰매의 첫 물꼬를 튼 이후 마침내 한국 썰매에 도약기가 시작됐다고 할 만하다. /연합뉴스